

제약사 36곳 “구상금 납부 못해” 정부에 집단소송

발암물질 논란 ‘발사르탄 사태’ 확산

건보공, 구상금 20.3억 납부 고지 징수율 21.5%, 4.36억원 불과

제약사 “허가받은 의약품 판매 정부도 일정부분 책임 있어”

지난해 발암물질이 검출돼 논란을 빚은 발사르탄 사태가 정부와 제약사들간 집단 소송으로 번지고 있다. 정부가 발사르탄 제제로 인한 손실을 제약사들에 보상하라며 유례없는 금액을 청구한 것이 문제가 됐다.

3일 업계에 따르면 대원제약 등 국내 제약사 36곳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걸었다. 정부가 제약사들에 청구한 20억여원의 구상금을 납부할 수 없다는 것이 소송의 취지다.

건보공단은 지난 10월 제약사 69곳에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 참여한 제약사〉

- 대원제약 ·휴온스글로벌 ·삼일제약
- 한국휴텍스제약 ·하나제약 ·이연제약
- 한림제약 ·구주제약 ·진양제약
- JW중외제약 ·다산제약 ·건일제약
- 명문제약 ·대화제약 ·국제약품
- 한국콜마 ·한화제약 ·동구바이오제약
- 아주약품 ·신일제약 ·넥스팜코리아
- 유니메드제약 ·환인제약 ·휴온스메디케어
- 테라젠이텍스 ·광동제약 ·이든파마
- 삼익제약 ·SK케미칼 ·마더스제약
- 바이넥스 ·이니스트바이오제약 ·JW신약
- 씨엠지제약

20억3000만원의 구상금을 납부하라고 고지했다. 구상금은 채무를 대신 변제할 자가 채무 당사자에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금액이다. 건보공단이 발사르탄 원료 의약품에서 발암 우려 물질인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이 검출된 후 환자들에게 문제의 의약품을 회수·교환

해주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제약사들에 배상하라고 요구한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11일 구상금 징수율은 21.5%에 불과하다. 당시 69곳 중 26곳만 4억3600만원의 구

상금을 납부했다. 구상금을 납부하지 않은 45개 제약사 중 36곳은 정부의 손해를 대신 감당할 이유가 없다며 채무에 대한 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것이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국내 제약사는 대원제약, 한국휴텍스제약 한림제약, JW중외제약, 명문제약, 한국콜마 등 36곳으로, 대원제약과 휴텍스제약의 경우 구상금 청구금액이 2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에 참여한 제약사 관계자는 “정부가 이렇게 많은 제약사들을 상대로 거액의 구상금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제약사의 잘못이 아니라 입장이 있지만 이런 선례를 남기지 말아야겠다는 의지가 더 컸다”고 설명했다.

제약사들은 발사르탄 의약품의 제조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발사르탄에서 불순물이 검출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정부와 마찬가지로

제약사도 인지하지 못했고, 예측조차 할 수 없었던 상황이라는 것이다.

특히 이미 허가를 받은 의약품을 판매한 것은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구상금을 납부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당시에는 발사르탄에 함유된 NDMA를 발견할 수 없었다고도 항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발사르탄 사태가 벌어진 후 NDMA를 검출할 수 있는 시험법을 마련한 바 있다.

발사르탄 이후 라니티딘, 니자티딘 제제에서도 NDMA가 잇따라 검출되면서 구상금 청구가 다른 제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반영됐다.

제약사 관계자는 “만일 이번엔 구상금 청구를 받아들이면, 앞으로도 정부가 손실이 날 때마다 제약사들에 배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며 “문제가 된 제제 판매를 허용한 정부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는 만큼 제약사들만 모든 책임을 떠안을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韓 학생, 읽기·수학·과학 성취수준 ‘최상위’

OECD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

읽기 5위, 수학 2위, 과학 4위 ‘삶의만족도’는 평균보다 낮아

우리나라 만15세 학생들의 읽기·수학·과학 성취도는 세계 최상위 수준이지만, 삶에 대한 만족도는 OECD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3일 9시(프랑스 파리 시각)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PISA) 2018 결과를 공식 발표했다.

PISA는 만 15세 학생의 읽기, 수학, 과학 소양의 성취와 추이를 국제적으로 비교하고 교육맥락변인과 성취 사이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3년 주기로 시행되는 국제 비교 연구다. 우리나라는 첫 주기인 PISA 2000부터 참여하고 있다.

이번 PISA 2018은 37개 OECD 회원국과 42개 비회원국 등 총 79개국에서 약 71만 명이 참여했다. 우리나라는 188개교 총 6876명(중학교 34개교 917명, 고교 154교 5881명, 각종학교 2교 78명)이 참여했다.

우리나라 학생들은 상위 수준의 성취를 보였고, 전 영역에서 OECD 평균보다 높은 평균 점수를 기록했다. OECD 회원국 중 읽기(514점)는 2~7위, 수학(526점)은 1~4위, 과학(519점) 3~5위로 높은 수준이었다. 앞선 평가(PISA 2015)와 비교하면 읽기는 상승, 수학은 동일, 과학은 하락했다.

읽기 영역 국제 비교 결과 에스토니아(523점) 순위가 가장 높았고, 이어 캐나다·핀란드(각 520점), 아일랜드(518점), 대한민국(514점), 폴란드

(512점), 스웨덴(506점), 뉴질랜드(506점), 미국(505점), 영국(504점)이 상위 10위권에 들었다.

수학 영역에서는 일본(527점)이 가장 높았고, 이어 대한민국(526점), 에스토니아(523점, 네덜란드(519점), 폴란드(516점), 스위스(515점), 캐나다(512점), 덴마크·슬로베니아(각 509점), 벨기에(508점) 순으로 높았다.

과학 영역은 에스토니아(530점)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고, 이어 일본(529점), 핀란드(522점), 대한민국(519점), 캐나다(518점), 폴란드(511점), 뉴질랜드(508점), 슬로베니아(507점), 영국(505점), 네덜란드·독일·호주(각 503점) 순이었다.

PISA 점수는 평균 500이고, 표준편차 100인 척도점으로 각 국가의 순위를 범위로 제공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학생들은 삶에 대한 만족도가 이전 평가(PISA 2015) 대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지만, 여전히 OECD 평균보다는 낮았다. 만족도 지표는 ‘요즘 자신의 전반적인 삶에 얼마나 만족합니까?’란 질문에 대해 ‘전혀 만족하지 않음’~‘10(완벽히 만족함)까지의 척도로 응답한 값의 평균이다.

우리나라 학생들의 삶에 대한 만족도 지수(6.52)는 OECD 평균(7.04)보다 낮았다. 다만 PISA 2015 삶에 대한 만족도 지수(6.36)보다는 0.16 증가했다.

교육부는 “PISA 2018 최상위 국가 교육정책 변화와 국제적인 교육 동향을 분석해 우리나라 교육정책 추진 상황을 지속 점검할 계획”이라며 “상위권 성취 수준 유지를 위한 맞춤형 학습 지원 방안 모색이 요구된다”고 평가했다. /한용수 기자



성윤모 장관, 에너지복지 지원기구 방문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시 강서구 소재 기초생활수급자 가구를 방문해 위문품을 증정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교육부, BK21 사업에 7년간 2.9조 투입

〈두뇌한국21〉

혁신성장 석·박사 13.3만 육성 스마트공장 등 8대 산업 지원

정부가 7년간 2조 9000억원을 투입해 혁신성장을 선도할 석·박사급 인재 13만 3000명을 지원한다. 이전 사업비(1조 9000억원)에서 1조원 증액(정부안 기준)된 규모다. 또 스마트공장·스마트팜 등 8대 핵심선도산업과 빅데이터·인공지능 등 13대 혁신성장동력분야 지원사업을 신설하고, 지역 산업과 연계한 지역대학 예산 지원 비율도 35% 이상으로 확대해 지원키로 했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3일 서울 시립대 대강당에서 이 같은 내용의 ‘4단계 두뇌한국21 사업 기본계획(안)’을 발표했다.

두뇌한국21(Brain Korea 21, 이하 BK 21) 사업은 학문 후속세대가 학업과 연구에 전념하도록 대학원생 연구장학금, 신진연구인력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석·박사급 인력양성사업이다.

1999년 시작한 이후 1,2단계를 거쳐 현재 3단계 사업을 진행 중이다. BK21 사업은 그동안 사업 참여 교수와 대학

원생의 SCI급 논문 수와 논문의 영향력 지수를 상승시키고 국내 대학의 연구중심대학으로의 개편을 유도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SCI급 논문 수는 첫 해 교수의 경우 4392건에서 2017년 2만 4968건으로, 학생의 경우 1615건에서 1만 3687건으로 증가했다. 연문의 영향력을 평가하는 1인당 논문 IF는 같은 기간 5.9에서 21.4(참여교수), 1.36에서 1.8로 높아졌다.

이번 4단계 사업은 기존 사업 성과를 발전시키고, 4차 산업혁명과 인구구조 변화 등 사회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하는 석박사급 인재양성에 초점을 뒀다. 사업은 ‘미래인재 양성사업’에 ‘혁신인재 양성사업’을 신설해 구분 지원하고, 혁신인재 양성사업은 ‘신산업분야’와 ‘사회/지역산업 문제 분야’로 나뉘 추진된다. 사업기간은 2020년 9월부터 2027년 8월까지 7년이다.

또 지역대학 예산 지원비율을 전단계 수준(35%) 이상으로 확대해 지역 산업과 연계를 통한 지역 단위 고급인재 양성을 지원한다.

신산업 분야는 스마트공장, 스마트팜, 핀테크, 에너지신산업, 바이오헬스, 스마트시티, 드론, 미래자동차(8대

핵심선도사업), 빅데이터, 차세대통신, 인공지능, 맞춤형 헬스케어, 가상증강현실, 지능형 로봇, 지능형 반도체, 첨단소재, 혁신신약, 신재생에너지, 스마트시티, 드론, 자율주행차(13대 혁신성장동력분야)로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소재·부품·장비 분야도 지원 가능하다.

석박사 과정생 지원을 연간 1만 7000에서 1만 9000명 수준으로 확대하고, 연구장학금(석사 월60만원 → 70만원, 박사 월 100만원 → 130만원), 신진연구인력 인건비(월 250만원 이상→300만원 이상)도 인상한다. 조교·연구원 업무 관련 협약체결 의무화 등 대학원의 안정적 학업·연구 전념 환경 조성에 나선다.

교육부는 이번 기본계획 발표 이후 올해 중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1월 중 사업계획을 확정해 공고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공개경쟁을 통해 연구단 수는 총 577개 내외를 선정해 지원한다. 사업단 규모에 따라 사업비는 다르나 사업비의 60% 이상(일부는 50% 이상)을 대학원생 연구장학금으로 지원하고, 그 외 사업비로 신진연구인력 인건비, 대학원생 국제학술대회 참가경비 등으로 사용하게 된다.

/한용수 기자 hys@

〈PISA 2018 대한민국 결과〉

구분	읽기		수학		과학	
	평균 점수	순위	평균 점수	순위	평균 점수	순위
대한민국	514	2~7	526	1~4	519	3~5
OECD 평균	487		489		489	